

가뭇을 적셔줄 구호금 전달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



<본월회상일이사> 윤 수 복

지난 2월 3일 나는 흥신영회장을 모시고 극심한 가뭇으로 허덕이고 있는 전남지구 주민들을 위문하고 '구호금 73,100원을 전달했다.

이 구호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간호원은 물론 간호학생과 서독에 나가 있는 회원들이 성의껏 모아온 성금으로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바쁜 시간을 틈내어 직접 전남지구를 찾아 위문과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에 뜻이 있다고 본다.

X X X

나는 준비차 미리 2월 1일 오후 6시 마호에 몸을 싣고 그동안 총회 준비차 복잡하던 머리를 깨끗이 달래며 광주로 향했다.

오후 7시에 가보는 전남지구라 조금 불안스컬기도 했지만 전남지부에 미리 연락을 해 놓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다.

광주역에 도착하자 미리 마충나와 주신 전남지부의 김영숙회장, 양은숙 부회장, 그리고 김옥실씨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숙소로 함께 가서 일정과 순서를 계획했다.

다음날은 간호학교와 전남지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회장님을 만나 함께 수피아간호학교로 직행하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계획을 빠듯하게 세웠기 때문에 회장님은 차에서 내려 숨돌릴 사이드 없이 마치고 납치되어가듯 수피아간호학교로 향했다.

지구 1년이 되어가는 학교로서는 학교의 실습실이나 기숙사가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무자들의 숨은 노고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간호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이란 기대로 흐뭇해움을 느꼈다.

새로 증축한 계증병원도 방문했는데 그 최신식 시설과 제도는 물론 그동안 전남도민의 보건분야에 끼친 공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국립병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에 가슴이 아팠으며 우리가 그 원인을 연구하여 해결해야겠다는 충동마저 느꼈다. 저녁 6시에는 YWCA에서 전남지부회원들과의 회식을 겸한 모임이 있어서 협회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가 오갔으며 특히 지방회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일일히 설명을 하고 서로 힘을 합해 우리 협회를 키워나가자는 결론을 얻었다.

그날 저녁 지친 피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 양은숙씨의 안내로 전남의대부속병원과 간호학교를 방문하고는 홍신영회장, 김영숙 전남지부장, 구기순임원, 문영수 선생, 제중병원 보건간호원, 김상채선생, 윤전수등 나까지 8명의 일행은 제중병원에서 내주는 차를 타고 한해지구로 떠났다.

× × ×

우리가 도출기로 한 한해지구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라는 마을로서 무안군청이 목포시에 있으므로 우선 목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넓은 호남평야는 60년내에 처음보는 극심한 가뭄이라던 말이 거짓이라기도 한듯 비와 눈으로 적셔 있었다.

해마다 겪는 한해나 홍수만 아니라면 얼마나 기쁜지 꼭창인가 하는 아쉬움이 앞섰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산이 많은 이북평과는 달리 넓고 시원한 평야가 내 마음까지 시원하고 훌쩍하게 해주었다. 오후 1시에야 목포시내에 있는 무안군청에 들러 군수와 사회과장을 만났다. 주민들이 원하는 불건을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지만 무엇

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운반하기도 곤란하므로 우선 현금을 전달하고 차후에 군에서 불건운반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남지부의 구기순임원의 부군이신 김상채 선생은 공보기관에서 일하는 분으로 특히 이번엔 우리들의 사전을 찍어 주기 위해 나와 주셨는데 모든 안내를 도맡아 수고해 주셨다.

자칭 전남의 백과사전(?)이라고 하시는 김선생님이 안계셨더라면 이번 여행은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여기며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는 기왕에 목포까지 온 길에 팔롬반간호학교를 방문키로 하고 잠깐 들렀으나 마침 병원을 증축한다고 교실을 없애고 방학중이라 고루 보지 못함을 섭섭히 여겼다.

다시 차에 오르려고 하는데 팔롬반의 수녀님이 봉투에 1,000원을 넣어 가지고 오더니 한해지구 구호금으로 보태달라고 하여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간 72,000원에 보태쓰기로 했다. 시간이 없어 결핵아동병원에 잠깐 들러서는 문앞에서 의류상자만을 받아 다시 차를 망운면으로 몰았다.

망운면은 광주와 목포 사이에 있어서 오던 길을 다시 20분쯤 달려면 사무소에 도착했다.

면장은 반가히 맞아주며 우리를 반길 줄을 지나 피서리 구장벽으로 안내

해 주었다.

× × ×

57세대로 312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이 피서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마을로 빨간 질퓌땅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겨우 손가락만한 고구마를 캐어냈다고 한다.

마침 음력설이라 도무 옷도 깨끗이 입고 명랑한 표정들이었으며 우리들을 반겨 주었다.

많은 마을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홍신영회장께서 직접 현금 73,100원을 주장에게 전달하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가장 유효하게 써 주기를 부탁했다.

사실은 새끼끼는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마을에 가보니 벼농사가 안되어 지붕도 울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현재 있는 기계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사오기를 천만다행으로 여겼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마을 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또 제중병원의 보건간호원이 앞으로는 가족계획과 결핵관리 및 예방접종을 담당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민들의 전송을 받으며 피서리를 떠났다.

사흘동안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마치고 나니 피곤이 한데 몰려옴을 느끼며 송정리로 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허동지동 차에 올랐다.

아침 10시 40분에 광주를 떠나 저녁 9시기차에 몸을 실기까지 약 500리길을 철차로 달렸으니 긴 여행을 한 셈이다.

차에 올라 제자리에 앉고서야 바쁜 일정으로 작년 11월부터 미루어오던 일을 이제야 끝냈다는 후련함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 × ×

특히 바쁜 시간을 내어 동행해 주신 홍신영 회장과 전남지부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부와의 우의가 더욱 두터워지고 이해가 증진된 것을 또 하나의 큰 수확이라 믿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작년도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긴 했지만 시간과 경비관계상 이루지 못한 각지부 순회를 금년에는 꼭 실천하여 지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생각이다.

각지방 구석구석의 회원들의 소리를 고루 들어 회원들의 공익기관으로 협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성의껏 구호금을 보내준 회원, 간호학생 그리고 멀리 서독에 있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주선해 도와 주신 전남지부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